

[두산아트스쿨: 미술]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II (정윤아)

11/3 3강 에드 루샤: 미국 서부의 정서를 담아내다

- 에드 루샤의 평범하지만 이상한 세계

"우리 시대의 진짜 풍경은 기호와 상징, 그리고 얼룩이 함께 엮인 리본이다." - 에드 루샤

강의 개요

미국 중서부 지역인 네브래스카(Nebraska) 주 오마하(Omaha) 출생의 에드 루샤(Ed Ruscha, 1937~)는 미술대학 진학을 위해 LA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미술 인스티튜트(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를 다닌 후, 줄곧 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한 광고 대행사에서 레이아웃 미술가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풍경, 대중문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루샤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작품 속에 기호와 상징을 담아내는 시인 같은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앤디 워홀과의 공통점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 뉴욕의 팝아트를 대변한다면, 루샤는 LA의 팝아트를 대표한다. 작품 스타일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전혀 없지만 둘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루샤는 동시대 미국인의 삶에 밀착된 일상적인 단어를, 워홀은 코카콜라나 캠벨 수프 같은 일상 오브제를 작품 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둘은 가장 미국적인 도상을 만들어냈다. 광고나 잡지,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영감을 얻은 점도 흡사하다. 초기에 상업 예술을 추구하다 순수예술로 전향한 것도 같다. 두 예술가가 공통적으로 '고급'과 '저급' 사이 경계를 깨기 위해서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상업 예술 테크닉을 회화에 도입한 것은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2) 앤디 워홀과의 차이점

광고나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작품에 반영한 워홀과 달리 루샤는 기존 이미지를 차용한 적이 없다. <라디오라는 단어를 망가뜨리면서 2>(Hurting the Word Radio #2, 1964)를 보라. 이미지라고는 없는, 일견 무미건조한 이 그림에서 미국인들이 1960년대 LA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전역에 TV 보급이 일반화된 이후에도 라디오는 미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LA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운전하면서 크게 틀어 놓은 라디오는 자유분방한 문화, 젊음과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LA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한다. 한 번이라도 66번 고

속도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보면서 캘리포니아의 빛나는 햇살 아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로큰롤 음악을 들으면서 대형 광고판이 줄지어 늘어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장면을 바로 떠올리리라. 이처럼 루샤의 작품은 간결하지만 상당히 함축적이고, 그렇기에 시적이다.

3) 대표작



〈라디오라는 단어를 망가뜨리면서 2〉(Hurting the Word Radio #2, 1964)

밝은 하늘색 바탕에 '라디오'(RADIO)라는 굵은 대문자가 빛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작품.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단순한 바탕과는 대조적으로 짐쇠가 글자 'R'과 'O'를 물어 뒤틀린 형상에다 비닐처럼 얇은 재질과 그림자까지 극사실적으로 묘사돼 오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루샤를 1960년대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구축해 준, 그의 발명품인 '문자 회화'의 중요한 초기작 중 하나다. 문자와 단어를 회화에 활용한 이 독특한 스타일로 그는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서부 지역 팝아트 전개를 이끄는 선봉대에 서게 된다.



『26개의 가솔린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 1963)

66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LA 일대 주유소를 찍은 흑백 사진들을 모아 『26개의 가솔린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s)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 역시 1960년대 미국 서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활한 도로와 황량한 풍경, 그리고 각양각색의 주유소와 로고들. 이때 찍은 사진을 회화로 옮긴 '주유소' 연작도 루샤를 LA 문화의 충실한 기록자이자 대변자로 만들어줬다.



〈불타는 주유소〉 (Burning Gas Station, 1966)

화염에 휩싸인 주유소라는 충격적인 소재 이외에도 많은 상징과 함축이 담겨 있다. 딱딱한 직선으로 그려진 주유소와 대조를 이루며 치솟는 불꽃은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떠올린다.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사선 구성은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의 속도감을 그대로 전달한다. 과장될 정도로 날카로운 모서리는 주유소의 견고함을 한껏 강조한다. 그러나 그런 견고함은 허상이라는 듯 치솟는 불길. 검게 그을린 하늘은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색면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화같이 간결하게 표현된 주유소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화염에 휩싸인 주유대와 '스탠더드'(STANDARD)라는 주유소 간판. 이 그림에서도 글자는 미국 서부의 문화를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